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임영상 · 황영삼 외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각지에서 통제체제하의 협회(조직)를 구성했고 1925년 무렵에는 그것이 이미 연해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있었다. 이후 1937년과 1938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단행된 강제 이주정책으로 더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동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수십만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남게 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집필진

고가영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역사학박사

김건숙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 한국어 강사

김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BK21 계약교수

김상철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 한국학과 부교수

김석원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박지배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학술원 역사연구소 박사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준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사학과 수료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소영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역사학 박사과정 수료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초판 인쇄 2005년 5월 20일

초판 발행 2005년 5월 30일

지은이 ▪ 임영상 · 황영삼 외 공저

펴낸이 ▪ 안 병 만

펴낸곳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 02)2173-2494, 2495

팩스: 02)962-7122

홈페이지: <http://press.hufs.ac.kr>

전자우편: press@hufs.ac.kr

출판등록: 제6-6호(1969. 4. 30)

편집 ▪ 디자인 ▪ 이환기획 02)2254-4301

ISBN 89-7464-353-7 93320

정가 18,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1860년대에 연해주에서 시작한 조선의 유이민들, 즉 고려인의 러시아 생활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3년간의 내전기를 거쳐 연해주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1922년부터 소련의 전 영토에 걸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계획경제와 통제체제에 입각한 위로부터의 직장배치 결정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당의 인위적인 민족재배치 결정에 따른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었다.



ISBN 89-7464-353-7

정가 18,000원